



공간을 함께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미트쉐어 모임후기

공간을 함께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모임장소

적재적소 협동조합

모임일시

16년 10월 15일 토요일 저녁

모인 사람들

홈쉐어링, 공동작업실, 에어비앤비 등 공유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



A씨 :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공유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본 모임의 모임지기. 미술 작업을 하고 있고 겨울이면 늘 부업거리를 찾아 헤매임. 뭔가 작업이 아닌 것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잘 모름. 공유공간을 활용해서 팝업 술집이나 밥집을 운영하고 싶음. 수제주류를 만들고 있음.

B씨 : 서울의 모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4년간 운영했

음. 3명의 공동운영자가 있었지만 초반부터 2명이 싸우고 한 명이 뛰쳐나감. 외국 예술가들과 국내 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꿈꿨으나 생각만큼은 잘 되지 않음. 그래도 나름 이쪽에서 유명함.

C씨 : 작업실을 에어비앤비로 임대하고 있고 공간을 빌려 작은 카페도 하고 있음. 공동 작업실에 다녀가는 사람들과 에어비앤비로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음.

D씨 : 몇 달 전부터 홈쉐어링을 하고 있음. 활동 시간대가 달라서 얼굴은 잘 보지 못함.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친해져서 둘이 술도 한 잔 했음. 성별이 달라서 이웃에게 약간 눈치가 보임. 남매라고 소개하기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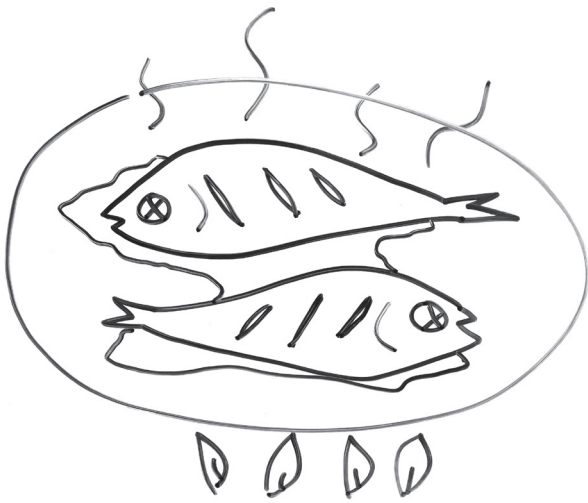
E씨와 F씨 : 4년째 홈쉐어링을 하고 있음. F씨가 피터팬 카페에 올린 하우스메이트 공고를 보고 E씨가 찾아감. 첫번째 집에서 2년을 산 후, 둘이 같이 집을 구해 이사도 함. 지금은 하우스메이트이자 친한 언니동생.

등등등

아래 이어지는 모임 후기는 여러 사람이 오고간 미트쉐어의 느슨한 기록입니다. 모임을 주최한 사람의 이야기만 담기보다는 그 날 주고받았던 두서없는 대화의 부분을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우리가 주고 받은 이야기들은 공유공간이라는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튀었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 첨부된 일러스트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끄적인 낙서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어를 구우며



가을엔 당연히 전어를 먹어야지. 전어구이를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들과 전어를 구워 나누어 먹기로 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어와 밥한공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함께 쓰는 공간이 우리의 삶의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 싶었다.

나는 적재적소라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서대문구의 작은 한옥을 공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말이 좋아 협동조합이지 조합원들이 모여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뚜렷한 목표 없이 무작정 시작한 협동조합은 두 달째 표류중이다. 무엇보다 7명이 이 공간에 대해 느끼는 온도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쉬는 공간이 아까워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공간을 올려 보았다. 생각보다 빨리 첫번째, 두번째 이용자를 만날 수 있었다. 첫번째는 홍콩사람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휴식차 한국에 놀러온 경우고, 두번째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으로 서울로 한달간 휴가를 왔다. 이 사람 역시 제주도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었다. 문득 주변을 생각해보니 공동작업실을 가지고 있거나 홈쉐어링을 하는 사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처럼 함께 공간을 쓰는 것에 대해 불편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공유공간을 이용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 공유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왜 공유공간이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유공간을 사용하거나 운영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들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공간 하나 차지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설사 방 한칸을 얻는다고 해도 그 동안의 노력이 슬퍼질 정도로 그 환경은 열악하다. 문득 몇년 전 해방촌에서 집을 보러 다닐 때가 생각났다. 남산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딱딱딱딱 한치의 틈도 없이 빼곡히 들어찬 다세대 건물들의 홍수였다. 그 수많은 집중에 내가 살 집은 없다는 생각에 서글프기도 했다.

물론 공동작업실을 쓰는 창작자들은 경제적인 이점 외에도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꼽기도 한다. 특히 프리랜서들은 인맥을 통해 일감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은데 동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경우 서로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가능했다.



"결국 돈 때문이죠. 돈만 있으면 으리으리하게 해 놓고 혼자 쓰고 싶지. 결국 경제적이 이유가 가장

커요. 뭐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니까요. 비슷한 생각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재미 있기도 하고. 근데 스트레스도 많아요."

"에어비앤비를 시작한 이유도 결국 월세 때문이었어요. 저희 작업 끝나고 집에 가면 공간이 남는 게 아깝잖아요. 고정 수입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면 월세 부담이 훨씬 줄죠."

"보통은 집에서 혼자 작업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너무 답답해서... 어디 카페에 나가서 작업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도 만나보고 싶거든요. 서로 자극도 될 거 같고 혼자 있으면 게으름 피우는데 긴장감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공동작업실을 찾아보면 마음에 드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해 볼까 생각중이에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놀이터처럼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멍 때리면서 앉아있기도 좋고. 가끔 이렇게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요. 회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반려로써의 공간



어느 날 부터인가 집은 잠을 자는 곳, 혹은 짐을 넣어두는 창고 이상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른 아침 출근을 하고 밤에는 지쳐 돌아와 잠을 자고 내일이면 또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곳에서 나의 '삶'이라는 것은 자라날 수가 없었다. 어느샌가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삶으로 연명하며 바깥으로만 나돌고 있었다.

이런 삶에서 '반려' 로써의 공간이 가능할 것인가?

"어느날 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이케아 아니면 다이소더라고요. 집은 2년 마다 이사를 생각해야 하니까...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벼운지, 또 조립과 해체가 쉬운지 하는 문제예요."

"저는 작업자로 책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독립하면서 책상은 좀 좋은 걸 사자 했어요. 묵직하고 큰 거죠. 나무 결도 살아있고. 근데 지금은 좀 후회해요. 그냥 가벼운 거 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애착을 가지고 살 물건을 사지 않게 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애정을 갖고 평생을 반려할 공간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과 부동산.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언뜻 생각나는 이미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과는 영 동떨어져 있는 의미로 다가온다.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며, 특히 우리세대에게 집이라는 것은 갖지 못하는 실체 없는 이상이다. 물론 2년짜리 월세방도 집이라고 부를수는 있지만 집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안으로써의 공유공간

집이라고 하는 장소가 한 개인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써 공유공간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형태는 물론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작업실이나 사무실 등이 될 수도 있다.

공유공간은 어떻게 삶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것일까?

"저는 공유공간이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대안이 될 수 있는거 같아요. 물론 여기도 계약 만료되면 이사가야 하는건 마찬가지지만... 공동으로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건 맞아요. 집과는 다른 느낌이지요. 그걸 소속감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확하게 그 단어랑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닌데. 책임감? 온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에어비앤비에 온 손님들도 단순히 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의 모텔이나 호텔과 다르게 없으니까."

"공유공간에서는 사용자들이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되는 점이 흥미로워요. 손님이면서도 주인이죠. 예전에 알바했던 술집이 있는데, 거기 알바들이 그만둔 다음에도 손님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원래도 매일같이 오는 단골들이 많아서 가게가 바빠지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보면 설거지 하고 있고, 주문도 가서 받고... 그런게 되게 특이하면서도 재미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일종의 공유공간이었던 거죠. 실제 지분은 없지만 공동 운영이 가능한."

"요즘 유행하는 혼술이나 혼밥을 위한 식당들도 결국 혼자이면서 혼자이지 않은 공간을 사람들이 원해서 인 것 같아요. 저는 연희동에 있는 책바라

는 곳에 가 봤는데, 그곳은 보통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곳에서 따로 술을 마시고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데에서 묘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요."

"공유공간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공간들이 사람들의 취향을 드러내거나 존중받기에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 조합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나중에는 크게 마케팅으로 쓰이면서 상업화되었긴 하지만 여튼 그것도 개인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거죠. 굉장히 작은 것들이 드러나는 방식들이 저는 공유공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리에서 흔히 보는 커피숍, 호텔 뭐 그런게 아니고요."

"공유공간은 메타서비스라고 해야하나? 공간은 비어있는 거니까요. 그 공간을 점유하는 거 자체가 서비스는 아닌거죠. 결국 그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문화적이든 경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미있는거 같아요. 플랫폼이죠."

"메이킹 문화와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다 대량생산되는 것들이 지금은 개인의 창작물로 빠져나오고 있죠. 저희가 만드는 맥주도 그렇고. 요즘 막 생긴 작은 서점들도 그렇죠. 보면 교보나 영풍같은 서점이 아니고 특정 주제로 만들어진 서점도 많아요. 여행이라던가, 고양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공유공간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채워질 수 없었던 개인의 취향들이 발현되면서 나타나는 공간의 대안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작업실이나 사무실이 될 수도 있구요."

약간씩 다른 말들이 오갔지만 공유공간은 사람들을 단

순한 서비스 수혜자에서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위치 전환을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물론 공유공간의 일차적인 목적은 잉여분의 자원을 나누어 쓰는 것이지만 공간은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산되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손님이자 주인, 서비스 이용자이면서 공급자가 되는 방식에 묘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애정을 갖게 되며 모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반려공간으로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직은 부족한 제도와 인식

공간, 특히 집을 나누어 쓴다는 것은 가족 이상으로 확장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오해들이 있다. 이웃들의 눈총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에어비앤비 역시 아직은 법적 규제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닐 경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저 학생일 때 호주로 워킹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듀어나 뭐 그런 결혼정보사이트에서 워홀 다녀온 여자들은 등급이 아주 낮은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 다녀오면 다 동거 경험이 있어서 문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 등급은 최하위일테지만."

"저는 지금 홈쉐어링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 온지 얼마 안되서 옆집 아주머니가 신혼부부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떠보려고 하는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같이 사는 오빠도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 다음부터는 남매라고 하자고 해요. 근데 저희 성이 다른데... ㅎㅎ"

"에어비앤비 시작하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지... 근데 케이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완전 상업적인 게스트하우스들도 에어비앤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처럼 그냥 남은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우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잉여분을 남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던 상업시설과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그럼 공유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실현되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라도 반쯤은 재미삼아 아이디어를 내 보았다.

아이디어1

〈내가 알아서 할게〉 카레밥집



"저는 채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저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직접 요리해 먹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간다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들어 저라면 야채만 잔뜩 들어있는 카레를 만들 거예요."

"원래 카레는 하루 묵으면 저 맛있잖아요. 누군가 끓여 먹고 카레가 남아도 다음 사람이 와서 조금 물 붓고 카레 넣어서 끓여 먹어도 좋을 거 같은데요."

"마치 예전 하숙집처럼 밥통에 밥만 잔뜩 지어 놓고 점심때만 오픈하는거죠. 사람들이 같이 밥도 지어먹고 설겅기도 하고 가는 시스템이라면 딱히 품도 많이 들지 않을거 같네요."

아이디어2

〈퇴근후〉 공유서가

"늘 집에 가면 하는 일이 캔맥주 한 잔 마시면서 시시한 드라마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재방송되는 텔레비전을 보죠. 그게 참 싫은데도 그거 아니면 할만한 일이 없어요. 저는 작은 단편 소설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 안 보는 책들도 같이 보관하고 빌려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공유서가여도 좋죠. 사실 집에 책이 많은데 먼지만 쌓여있어요. 서로 책을 추천하는 멘트를 남겨주고 빌려 읽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해주면 재미있겠어요. 서로의 취향도 알 수 있고, 서로 꼭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다른 루트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그게 이번엔 책이 되는 거죠."

"예전에 대만에 갔는데 거기서 서점,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나 영풍같은 대형서점이 24시간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면 가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런 24시간 서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정리하며

공유공간은 사람들이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각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 공유공간은 공간의 '사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공간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유공간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제도 또한 잘 정비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날의 작은 모임은 심도깊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개인개인의 필요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다름없었다. 굳이 공유공간이란 주제를 내걸지 않았어도 결국 같이 책임있게 사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